

한국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의미

전명혁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은 힘차게 맥박치는 거대한 객관적·역사적 현실이며, 인간의 사회적 경험의 유기적 성장이며 우리 시대의 지평선의 커다란 확대다.”
(아이작 도이처, 『러시아 사상사』)

들어가며

필자는 이 글에서 일제하부터 해방공간 그리고 4·19시기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적 부침과정을 당운동과 통일전선체운동의 흐름을 통해 간략히 고찰해보려 한다. 진보정치세력은 정세에 따라 합법과 비합법의 형태를 띠고 ‘당형태’의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는 이를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상호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진보정치운동은 해방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끊임 없는 열망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 1918년 한인사회당과 고려공산당 그리고 조선공산당에서 비롯되는 전위정당의 역사는 민족해방과 동시에 계급해방을 추구했고 이러한 경험은 해방공간의 자주적 민족국가수립운동 과정

에서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그리고 남로당 등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고착화되었고 진보정치운동은 거세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등장한 진보당은 극악한 반공적 정치 지형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모른다. 4·19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진보정치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면서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등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정치이념을 들고 등장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합법 공간에서 진보정치를 탄압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마저 유린했다. 박정희 정권 시기 등장한 인혁당과 통혁당 그리고 남민전으로 이어지는 진보적·변혁적 정치운동의 흐름은 해방 이래 고립되고 소진된 진보역량이 엄혹한 독재정권하에서 그 맥을 잇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유린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과 87년 6월 항쟁시기 '민주진영'의 분열 속에서 등장한 노태우 정권 시기 학생운동·노동운동 등 사회운동은 이론적·조직적으로 한층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시기 진보적 사회운동은 '민족해방NL그룹'과 '제헌의회CA그룹' 등으로 양분되어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운동'을 위한 다양한 전략·전술과 '비합법 전위정당'이 모색되기도 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결성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시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은 독자후보를 내고 선거에 개입했으나 득표율은 1.2%, 3.9%로 저조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하나의 성과물이었다.

1989년 '역사의 종언'과 '자유주의의 승리'를 선언했던 후쿠야마는 "탈

역사 시기에는 예술도 철학도 없고 그저 인간 정신의 박물관을 관리하는 일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의 글 말미를 장식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는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징후들로 가득 차 있다. 아직도 청산해야 할 과제들과 올바른 가치의 문제는 ‘모호함’이 아니라 명료하게 우리들 앞에 제시되고 있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과 신간회

1. 두 개의 고려공산당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지 8년 후인 1918년 4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 창립되었다. 구한말 군인이었던 이동휘는 신민회사건(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간도로 망명을 떠나 그곳에서 조선독립을 위한 활동을 했다. 1917년 연해주로 건너간 그는 러시아 2월 혁명의 와중에서 케렌스키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가 10월 혁명이 볼셰비키의 승리로 끝나자 조선인 여성혁명이 김알렉산드라 페뜨로브나 스탄케비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이러한 계기로 그는 조선인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립했다.

이후 이동휘는 3·1운동 이후 상해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부임했다. 초기 임시정부는 이동휘를 비롯한 사회주의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참가했고 그들은 임시정부를 민족주의세력과의 ‘통일전선체’로서 인식했다. 한인사회당의 이론가인 박진순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운동」, 「혁명적 동방과 코민테른의 다음 과제」 등은 코민테른 기관지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게재되었고 그는 1920년 7월에 열린 코민테른 2차대회에 한인사회당 대표로 참석하여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에 레닌, 카메네프를 비롯한 19개국 대표의 일인이 되었다.

1920년 1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김철훈, 오하묵 등은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을 조직하고 1921년 5월 고려공산당 창립대회를 열었다. 한인사회당

역시 1921년 5월 상해에서 한인사회당 대표회를 소집하여 고려공산당을 창립했다.¹ 이로써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 탄생했다.

두 고려공산당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둘러싼 변혁론과 전술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자유시사변이라는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1922년 10월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양파의 통합대회가 무산되자 코민테른은 원동부 산하에 꼬르뷰로를 설치하고 두 개의 고려공산당을 해체했다. 그러나 두 개의 고려공산당은 국내 사회주의세력과 연결되면서 조선공산당 결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다.

2. 조선공산당 창건, 당재건운동

1925년 4월 17일 을지로 아서원에서 비밀리에 김재봉, 김약수, 조동호, 조보암, 박현영 등 19명의 사람들이 모여 조선공산당 창건을 선포했다. 서울청년회(고려공산동맹), 화요회(꼬르뷰로), 북풍회(까엔당), 조선노동당(스파르타쿠스당) 등 국내 여러 사회주의그룹은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등 대중조직의 건설에 협력하면서 동시에 전위당 건설을 위해 격렬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²

이러한 가운데 코민테른 산하 꼬르뷰로에 포진되어 있던 과거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계열의 사회주의자들은 화요회(화요파)를 중심으로 서울청년회(서울파)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한 채 조선공산당을 창건했다. 이러한 문제는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당운동의 역사 속에서 대립의 씨앗을 잉태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속에서도 조선공산당은 1928년 「12월테제」로 해체될

1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주의운동의 기원에 대해서는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참조.

2 역사학연구소 편, 전명혁,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조선공산당 창건」, 『역사속의 미래, 사회주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4, 88~92쪽.

때까지 3년여 동안 네 번에 걸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과 검거 속에서 3회의 당대회를 열고 노동자·농민운동, 청년·학생·여성운동, 신간회운동 등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1926년 6·10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여 3·1운동과 유사한 대중운동을 조직하려 했다.

1925년 8월 조동호의 코민테른 보고에 따르면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바라 보았다. 또한 그것이 조선프로레타리아가 일본자본주의에 대하여 서 있는 동일한 전선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³

1928년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 채택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테제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파시즘 규정 등 ‘계급 대 계급’ 전술의 기초는 그해 12월 10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에서 채택한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12월테제」)에 반영되었다. 노동자, 농민에 기초한 당의 재건을 지시한 「12월테제」는 명시적으로 조공의 해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공의 해체를 가져왔다.⁴

1929년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서울상해파, ML파, 화요파 등 조선사회주의운동 각 분파는 제각기 당재건운동을 벌이지만 당재건운동은 실패했다. 이재유의 경성트로이카그룹(1933~1936년), 박헌영의 경성꿈그룹(1939~1941년) 등의 활동이 있었지만 당재건은 해방공간을 기다려야 했다.

3. 반제민족통일전선과 ‘민족당’ 운동 : 신간회와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1927년 2월 15일 250여 명의 회원들이 종로2가 YMCA에 모여 신간회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방청인까지 더하면 1천 명이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 신간회는 코민테른이 1924년 중국의 국공합작을 반제통일전선의

3 T.H.Cho(Delegate of KCP ; 조선공산당 파견대표 조동호), “Report”, Aug.8, 1925, pp.117~126.

4 국사편찬위원회 편, 전명혁,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한국사 49』, 2001, 104~109쪽.

모델로 인식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당 형태의 '민족당'의 결성을 실현하려 했다. 또한 일제와 타협하려는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반자치론이 결합한 결과였다.

1926년 2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천도교를 국민당의 기초'로 할 것을 결의한 바 있고, 서울파의 전위조직인 고려공산동맹은 1926년 2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발기하며 "무산계급전운동의 경제적 결합과 정치적 투쟁의 통일기관과 동시에 조선민중의 전 혁명력을 집중 통일시켜 일 본제국주의에 반대할 민족유일전선의 형성"⁵의 필요를 주장했다. 서울파의 이 시도는 신간회의 창립으로 흡수되고 말았지만 그 의미는 합법적 무산계급정당과 반제민족통일전선을 동시에 사고했던 시도라고 생각된다.

신간회는 창립 10개월 만에 지회 100개 돌파 기념식을 치를 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어 1931년 5월 해체 당시 150여 지회에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⁶ 신간회는 일제하 엄혹한 시기에 합법적인 조직체로 민족주의·사회주의운동을 망라한 반제민족통일전선체의 진지한 모색이었고 노동자, 농민 등 대중운동의 지원과 민중생존권을 위해 일제와 투쟁했다.

해방공간 진보정치운동과 국가건설론

1.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민족해방투쟁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해방은 자주적인 해방이 아니라 미·소 강대국에 의한 타율적 해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해방은 조선 민중에게 커다란 감격이었고 식민지 통치체제에 억눌려 왔던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8월 15일 저녁,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

5 최창익·이정윤, 「고려공산동맹사업보고」, 1926.10.25.

6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260쪽.

준)가 결성되었다. 건준은 민족국가 건설에 뜻을 같이하는 좌우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망라되었다. 건준은 해방 1년 전인 1944년 8월 10일 여운형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이 모태가 되었다.

건국동맹은 “각인 각과를 대동단결하여 일본제국주를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일, 反추축(樞軸國 : 독·이·일-인용자)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세력을 박멸할 일, 건국부면에 있어서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일”⁷을 강령으로 활동했다. 여운형은 이러한 기반 위에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와 협력하여 건준을 조직했다.

사회주의세력은 건준을 건국동맹과 사회주의자의 연합 또는 사회주의자와 진보적 민족주의자와의 민족통일전선 등으로 주장했지만, 건준 중앙은 여운형의 리더십 아래 여운형·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안재홍 등의 중도우파와 우파, 이영·최익한·정백 등 장안파 공산당과 이강국·최용달·박문규 등 재건파 공산당세력이 집결한 연합전선적 정치조직이라고 보았다.⁸

건준은 해방 후 보름 만인 8월 말까지 지방에 145개의 지부가 설치되었다. 도단위는 물론 군단위 심지어 면단위까지 건준 지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건준의 참여세력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지방유지, 진보적 지식인, 학생, 민족주의자, 좌익운동가, 토착지주 심지어 부일경찰, 관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2.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3당합당

해방이 되고 가장 먼저 조선공산당을 선포한 세력은 ‘장안파’였다. 서울

7 한태수, 「한국정당사(상) - 8·15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世界》, 1960.6, 229쪽.

8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2, 207쪽.

파의 이영과 정백, 화요파의 이승엽·조동호·조두원, 상해파의 서중석, ML파의 하필원, 최익한 등은 8월 15일 밤 장안빌딩에서 조선공산당을 결성했다. 한편 박헌영, 김삼룡, 이주하, 이현상 등 경성콤그룹은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1945년 9월 8일 열성자대회에서 장안파 공산당은 자체해산하고 재건위 중심의 당의 재건을 결의하여 사실상 조선공산당의 창립대회가 되었다.

조선공산당은 「8월테제」(「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통해 공식적인 정치노선을 제시했다. 「8월테제」는 첫째, 조선의 해방이 소·영·미·중 등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평화적으로 혁명의 성공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고 둘째, 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 있으므로 민족적 완전독립과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셋째,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되고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차의 대표와 기타 모든 진보적 요소가 정견과 계급과 단체 여하를 막론하고 참여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대중이 지지하는 혁명적 인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⁹

건준이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고 조선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 세력은 11월 12일 조선인민당을 발족했다. 인민당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인민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 인민의 완전해방을 위한 정당”¹⁰임을 선언하며 “조선민족의 총역량을 집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을 기함,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전 민족의 완전해방을 기함, 진보적 민족문화를 건설하여 인류문화 향상에 공헌함을 기함”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일제 말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여 연안에서 활동하던 김두봉을 비롯한 화

9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1』,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0 김오성, 「조선인민당의 성격」, 《개벽》 73호, 1946. 1. 45쪽.

북조선독립동맹 세력은 1945년 12월 13일 귀국하여 정국을 관망하다가 1946년 1월 25일 부주석 한빈을 서울에 파견하여 백남운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동맹 경성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 확대를 꾀했다. 독립동맹은 1946년 2월 26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부응하여 명칭을 조선신민당으로 개칭하고 조선의 현 단계를 자산계급성 민주주의 단계로 설정하고 친일분자, 파쇼분자, 반민주분자 등 일체의 반동세력을 제외한 각 계급, 각 계층, 각당각파 일체의 민주역량이 집결한 통일전선의 결성에 의해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¹¹

백남운은 “유산계급의 독재의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무산계급 독재의 푸로민주주의와도 구별되는 민족적 민주주의”인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여 좌우익의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규정했다.¹² 조선신민당 부위원장 최창익은 “조선신민당은 현 계단 조선사회의 역사성에서 규정된 정당으로 그의 조직적 성원은 각 계급, 각 계층을 불문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은 각자의 지원에 의하여 다 참가할 수 있는 정치결사이다. 그런 까닭에 조선신민당은 한 계급의 정당도 아니며 한 주의의 정치결사도 아니고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 정당이며 민족적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 정권수립을 목적하는 현실 조선에 있어서의 정치노선에 의거한 진보적 민주정당”¹³ 이라고 말하고 있다.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북로당이 창립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남한에서 3당합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8월 3일 인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인테리 등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신민당 공산당 인민당의 합동은 조선 민족통일의 기초를 구축하고 민주진영의 주도체를 완성하는 것”으로 “신민당 중앙위원회와 공

11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 동녘, 1988, 109쪽.

12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 신진사, 1946, 16~17쪽.

13 최창익, 「민주적 민족통일전선의 역사성에 대하여」, 《독립신보》, 1946. 6. 19~23.

산당 중앙위원회에 3개 당을 1대 정당으로 통일할 것으로 제안”했다.¹⁴

3당합당의 의의에 대하여 여운형은 “합동은 현 단계의 민주주의적 과업을 가장 성실히 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도력을 광범한 인민의 정당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전체역량의 일층 능동적 강화를 기하는 것”이라 하면서 극소수 독점대지주, 대재벌과 특권 야망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군림에서 광범한 인민층을 해방시키는 ‘광범한 인민적 민주주의과업’을 제창했다.¹⁵

그러나 3당합당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둘러싸고 조공파 인민당, 신민당은 엄청난 내분에 휩쓸렸다. 조공은 즉각 합당을 주장하는 간부파와 합당에 앞서 당대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회파로 나뉘었고, 인민당은 좌우합작을 중지하며 총역량의 확대강화를 위해 3당합당을 추진하자는 김오성 등의 합당추진파(48인파)와 장건상, 이여성 등의 합당신중파(31인파)로 나뉘어 결국 표결에 부쳐져 48대 31로 합당이 결정되었다. 신민당은 부위원장 정로식 등 합당 적극파(중앙파)와 백남운 등의 신중파(반중앙파)로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미소공위의 결렬과 조공의 신진술 채택 등 정세는 급박하게 진전되어 갔고,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3당합당은 급속히 추진되어 1946년 9월 4일 남조선노동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언과 강령초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3당합당을 반대하는 조공 대회파와 인민당 31인파, 신민당 반중앙파는 1946년 10월 16일 사회노동당 결성을 추진했다.

계급정당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전환을 의도한 3당합당은 결과적으로 남로당과 사로당으로의 분리를 가져왔다. 이후 사로당이 9월총파업과 10월항쟁 등 대중투쟁의 고양이라는 정세 변화 속에서 고립되어 스스로 해산하여 남로당으로 흡수되지만 불완전한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

14 조선인민당 중앙집행위원회, 「합당제안문」, 《조선인민보》, 1946. 8. 5.

15 여운형, 「민주정당활동의 노선」, 《조선인민보》, 1946. 8. 12.

았다. 그럼에도 “1945~1948년의 해방 3년기는 한국 민주화투쟁의 원형을 주조한 시기였다”.¹⁶

진보당과 4·19 시기 혁신정당

1. 진보당의 결성과 이념

일제하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조선공산당 창당보고를 하기도 했던 조봉암은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서신을 띄어 사실상 조선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모색했다.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그는 이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1947년 2월 1일 조봉암은 과거 화요파 동지였던 김찬, 배성룡 등과 조선민족독립전선결성준비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의 정객들의 반민족적 편향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완수하기 위하여 혁명적 애국자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전선을 결성코자” 했다.¹⁷ 조봉암은 1948년 5·10선거에서 제헌의원으로서 당선되고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10월 조봉암은 일제 때 만들어져 해방 이후에도 존속했던 농회조직을 바탕으로 한국농민회의를 창립하고 의장에 선출된다. 그는 이외에도 그동안 접촉해 온 중도파나 혁신계, 족청계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자유사회당’이란 비밀서클을 조직했다.¹⁸ 그러나 이승만은 1951년 12월 이영근을 비롯한 50여 명을 연행하는 ‘대남간첩단사건’을 발표하여 조봉암의 신당조직의 중심부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조봉암은 1952년 8월 5일 2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16 정태영, 「진보당의 형성과 발전」, 《내일을 여는 역사》17호, 2004년 가을, 23쪽.

17 정태영, 『조봉암과 진보당』, 한길사, 1991, 124쪽.

18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상)』, 역사비평사, 1999, 44~45쪽.

“나는 계급독재사상을 배격한다. 공산당 독재도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이를 강고히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려 한다”는 정강을 내걸고 11.3%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승만에 대항한 정치인으로 부각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2년 후인 1955년 9월 1일 조봉암, 서상일, 신도성, 윤길중, 이동화, 장건상 등 40여 명의 혁신계 인사들이 ‘광릉회합’을 통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합의를 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로 사회민주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논의된 회합이었다.¹⁹

마침내 1955년 10월 24일 진보당 결성 제1차 추진준비위원회가 개최되고 12월 22일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여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 분위의 균형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서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는 진보당 발기 취지문과 “1.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로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정치의 실현, 2. 생산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의 육성, 3.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4.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국가보장제를 수립” 한다는 ‘강령초안’이 제시되었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급서하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대통령후보는 조봉암으로 단일화되었다. 조봉암은 전체 유효투표자수의 30%인 216만 표를 얻는 성공을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11월 10일 정식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

진보당이 걸어갈 길은 뚜렷합니다. 공산독재도 자본주의 독재도 다 같이 거

19 정태영, 앞의 책, 215쪽.

부하고 인류의 새 이상인 진보주의의 진리를 파악하고 만인이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²⁰

조봉암의 말처럼 진보당은 중도 노선을 표명했다. 해방공간 여운형의 인민당과 근로인민당 그리고 백남운의 조선신민당의 노선과 유사했다. 진보당은 1956년 12월 9일 경남도당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1957년 4월 15일 서울시당 결당대회, 1957년 7월 18일 전남도당 결성대회, 1957년 10월 전북도당 결성대회를 여는 등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그러나 1958년 1월 13일 4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진보당사건' 이 터지고 조봉암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모두 구속되었다. 진보당은 불법화되었고 배석 판사 이병용이 "진보당사건은 정치적 날조극이었다"라고 선언했지만 1959년 7월 조봉암은 법살法殺되었다.

2. 4 · 19 시기 혁신정당의 이념

1960년 3 · 15 부정선거는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가져왔고 마침내 4 · 19는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켰다. 4 · 19를 계기로 민중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치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진보정당운동이 재기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 당시 혁신세력에게 4 · 19는 '8 · 15를 맞던 심경' 이었고 '제2의 해방' 으로 인식되었다.²¹

'진보당사건'의 기억이 생생한 그들은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인 4월 27일 '혁신연맹'을 구성하여 정파를 초월한 단일조직으로 7 · 29총선에서 민주당에 대응하려 했지만 단일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

20 조봉암, 「나의 정치백서 -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고」, 《신태양》, 1957. 5. (별책) (정태영, 앞의 책, 375쪽)

21 송남헌 · 정태영 · 서중석, 「대담 : 고초로 점철된 혁신계 50년」, 《역사비평》, 1995년 봄, 87쪽.

각기 독자적인 정치조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5월 27일 근로인민당계의 장진상과 독립노동당계의 유림은 혁신동지총연맹을 만들고, 6월 14일 민족주의민주사회당계의 전진한과 민주혁신당계의 김철 등은 한국사회당을 조직했다. 고정훈, 한왕균 등은 사회혁신당을 조직했고, 진보당계열의 김달호, 윤길중은 6월 17일 사회대중당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1957년 10월 진보당에 참가하지 않고 민주혁신당을 창당한 서상일, 이동화뿐 아니라 근로인민당계열의 최근우, 유병목, 유한종 등도 참가했다.

사회대중당은 자신의 성격을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기업자 및 양심적인 자본가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대중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의 정치이념으로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웠으며, 당의 기본과제로서는 ① 소비에트식 독재 및 팽창주의 거부, ② 4월민주혁명 완수, ③ 산업구조의 조속한 균형화와 자립경제 확립, ④ 자주독립적 통일국가 건설, ⑤ 민주적 복지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²²

이 무렵 혁신세력은 1951년 7월 2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채택된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 독재라는 역사적 체험에 기초를 두고 민주적 사회주의의 진로를 밝힌다"는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의 강령綱領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를 수용하여 '민주적사회주의'를 당의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다.

한국사회당의 김철은 '민주적사회주의'는 "여하한 형태의 폭력적 수단도 배격하는 민주주의의 최고형태이다. 엄격한 의회정치의 틀을 근간으로 하여 계량과 사회화를 통하여 대중의 복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민주적사회주의의 입장은 (...) 사회민주주의 좌파나 '불세비즘'과는 근본적으로 세계관을 달리 하고 (...) 여하한 폭력도 배제하고 자유토론과 선거를 통하여 얻

22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1990, 323쪽.

어진 결과에 순종하면서 사회 각 영역에 걸친 조직적인 대중운동과 일체화하여 사회를 혁신하려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실현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²³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세력이 정치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정치지형은 외형상으로 는 ‘보수 대 진보’의 구도로 잡히고 7·29총선을 위한 선거운동도 민주당 대 사회대중당의 대결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대중적 기반이 극히 취약한 데에다가 이들 진보세력이 4·19혁명 과정에서 아무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정권과 민주당이 진보세력을 용공세력으로 몰아간 점 등이 크게 작용해 진보세력은 민의원의 경우 당선자 5명(서상일, 윤길중, 박환생, 박권희, 김성숙), 득표율 6.6%를, 참의원의 경우 당선자 3명(이훈구, 최달선, 정상구), 득표율 3.3%를 획득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도정치권은 민주당 신-구파에 의해 독점된 반면 진보세력의 정치운동은 비제도권에서의 운동으로 전개되어야만 했다.²⁴

4·19 이후 비제도 진보정치운동

4·19 시기 등장했던 혁신세력은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정권하에 서 1967년 김철의 통일사회당,²⁵ 사회민주당(1985년) 등으로 명맥을 이어 갔다. 1974년 11월 김철은 재야 민주세력과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참가하여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박 정권은 외교적 필요에 의한 정치적 장식물로 이용할 뿐이었다.

23 金哲, 「革新政黨의 입을달라 - 言論自由와 限界」, 《世界》, 1960.7, 111쪽.

24 김세균,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1999.12.15. (미발표 논문)

25 통일사회당이 1980년 10월 신군부 집권 후 계엄령하에 해산되자 1980년 11월 29일 고정훈이 김철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친정부적인 민주사회당을 창당하자, 김철은 이에 맞서 1980년 12월 3일 SI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당을 창당했다. (당산김철전집간행위원회 편, 김철, 「사회당과 민사당의 성격에 대하여」, 『堂山金哲全集』 5권, 2000, 257~263쪽)

한편 4·19 전인 1950년대 후반 대학 내에 진보적인 이념서클이 형성되었다. 서울대 문리대의 신진회新進會, 서울대 법대의 신조회新潮會, 고려대의 협진회協進會 등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영국의 페이비어니즘Fabianism을 이론적 경향으로 했다. 영국 노동당의 가맹단체이며 그 지적 기둥인 페이비언협회 Fabian Society는 시드니 웹Sydney & Beatrise Webb 부처, 버나드 쇼Bernard Shaw, 웰스H.G Wells 등이 설립한 것으로 콜G.D.H Cole, 해롤드 라스키Harold Laski 등 쟁쟁한 학자들이 멤버였다.²⁶

그밖에 부산의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암장岩漿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훗날 ‘인혁당재건사건’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수병을 비롯하여 김종대, 김정위, 박영섭, 김금수 등이 참여했다. 1960년 6월 12일 부산대 정치학 교수 이종률의 영향하에 제자인 김상찬, 하상연 등이 부산 지역의 각종 이념서클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결집시켜서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을 결성했다. 민민청은 1956년 민족문화협의회 결성을 출발로 시작하여 결성 이후 점차 조직 확산을 꾀하여 에스페란토 학회를 매개로 대구 경북지역에 도예중, 서도원, 송상진 등의 활동가들을 조직했다. 이들은 1961년 3월 민민청 경상북도연맹을 정식으로 결성했다.

1960년 9월에는 통일청년회 등과 신진회 일부 성원이 합류하여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이 조직되었다. 우홍선, 김낙중, 이재문, 양춘우, 김영광 등이 주요 성원이었다. 이들은 유병목을 매개로 해서 사회당 세력과 연결되었다. 통민청은 사회당을 매개로 그 주위에 있던 청년들이 결집한 단체로 사회당의 외곽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통민청은 서울, 대구, 전남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²⁷ 사회당은 통민청과 같은 시기에 “경상남·북도와 전남의 근민당, 조공·남로당, 빨치산 출신들이 모인 것”²⁸이었다.

26 남재희, 「4·19 민주학생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관훈저널》 75호, 2000년 여름.

27 김민희,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1992, 185쪽.

사회당을 비롯하여 민민청과 통민청은 1961년 2월 25일 사회당 등 진보 세력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결성하여 7·29총선 패배 이후 진보정치세력의 통일운동과 전선체운동에 주력했다. 민자통은 결성대회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지는 범국민운동체'로 성격을 밝히고 '민족통일 역량의 총집결'과 '통일유보 또는 선건설 후통일론 분쇄'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²⁹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4·19시기 합법적인 진보적 사회운동은 모두 정지되었고 이제 진보정치운동은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4년 8월 6·3학생운동 직후에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 1968년 8월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 및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그리고 1979년 10월 유신정권 말기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했다.

인혁과 통혁의 주요인물 가운데 몇몇은 해방공간 남로당과 관련되어 있기도 했고, 4·19를 전후한 시기 민민청, 통민청, 민자통 등 합법 공간에서 활동했다. 인혁은 대체로 앞서 언급한 민민청과 통민청에 관련한 인맥으로 구성되었다. 1차 인혁은 1964년 조직된 학생서클 불꽃회의의 주요 성원인 김정강의 수첩이 빌미가 되어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다. 김정강은 1964년 서울교도소에서 만난 도예종이 "김동지는 말이지, 당이 결성됐는지도 몰랐지 않았느냐(…) 그런 수첩에 어떤 사람 이름이 등장했을 때 그때마다 당이 터진다면 그게 무슨 전위당이 되겠나"³⁰ 하면서 자기비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인혁재건은 1971년 9월 경략연구회(經絡研究會)로 시작되었다. 4·19시기

28 「한상구 구성, 김세원 증언 :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 사회당 · 인혁당 · 남민전」, 《역사비평》, 1991년 겨울, 408쪽.

29 《민족일보》, 1961. 2. 26 ; 김지형,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제21호, 1996.9, 145쪽.

사회당에서 활동했던 김세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우동읍, 대구 서도원, 부산 L교수, 광주 김세원, 학원·문화 이수병' 등 5인이 모여 역할을 맡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1차 인혁당'이 "형식은 갖추되 물증은 남기지 않는 점조직 방식"이었다면 '경략회'는 "형식도 갖추지 않고 물증도 남기지 않는 점조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¹

서도원, 우동읍, 이수병 등이 구속되어 1975년 4월 9일 사형당하지만 김세원은 구속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여 1978년 이재문을 만나 남민전에 가입하고 호남지역을 책임지다가 구속되었다. 남민전은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 크리스천아카데미 등에서 배출된 활동가들이 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남민전은 「강령」에서 "미·일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신식민지 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³²고 규정했다.

한편 통혁당은 김종태³³가 1964년 5월 조카 김질락과 이문규 등과 《청맥靑麥》을 발행하고 '학사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확보된 인적 연계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³⁴ 통혁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당임을 자처하고 「강령」에서 "당면의 최고 목표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반봉건적 사회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제도 수립, 민족제통일 성취"로 규정했다.³⁵

인혁당과 통혁당 그리고 남민전의 진실은 아직 온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운동은 진보변혁운동과 전위운동의 큰 맥을 잇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

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김정강 증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2001, 92쪽.

31 「한상구 구성, 김세원 증언 :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 사회당·인혁당·남민전」, 《역사비평》, 1991년 겨울, 416쪽.

32 안병용, 「남민전」, 《역사비평》, 1990년 가을, 278쪽.

33 김종태는 1926년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46년 10월항쟁으로 수배당하기도 했다. 그는 통혁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68년 7월 체포되어 1969년 7월 사형당했다. (김민희, 「활화산, 『애국시대』의 주인공 김종태」, 앞의 책, 223쪽)

34 조희연, 「현대한국사회운동과 조직 - 통혁당·남민전·사노맹을 중심으로 본 비합법 전위조직 연구」, 한울, 1993, 151쪽.

35 편집부 편, 『통혁당』, 대동, 1989 참조.

고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³⁶

1987년 전후 진보정치운동의 흐름

1.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의 정치이념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한국사회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80년 광주의 패배의식에 깊이 빠져있던 학생운동은 '무림-학림' 논쟁(1980~1981년)과 1982년 '아버-전망' 논쟁, 1984년 '깃발-반깃발' 논쟁, 1985년 'MT-MC' 논쟁 학생운동논쟁에 대해서는³⁷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갔다.

1985년 4월 결성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산하의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민족·민주·민중의 3민 정권의 수립을 내걸었다. 삼민투는 1986년 4월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와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로 나뉘어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그룹과 CA(Constituent Assembly 제헌의회)그룹으로 분리됐다. NL그룹은 《해방선언》을 발행하여 한국사회 성격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파악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벌일 것을 주장하고 CA그룹은 《민족민주선언》을 발행하여 한국사회를 신식민지예속독점자본주의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헌법제정 민중회의소집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80년대 전반기 소모임활동 등을 통해 역량을 축적한 선진 노동자들과 학생운동 출신 노동자들은 1983년 말 블랙리스트철폐운동 등을 벌이면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노협)의 창립과 민주노조 건설에 주력했다. 이러한 투쟁은 마침내 1986년 6월 대우어패럴노조를 비롯한 10여 개 사업체

36 조희연, 『50·60·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운동사-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죽산, 1990, 107쪽.

37 학생운동논쟁에 대해서는 편집부 편, 『학생운동논쟁사1』, 일송정, 1988 참조.

2,500여 노동자들이 참여한 구로동맹파업으로 이어졌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분기점이 된 이 사건은 그해 8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탄생을 가져왔고, 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1988년 5월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가 결성되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³⁸

2. 1987년 대선 이후 진보정치운동의 흐름

19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는 가운데 치러질 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비판적지지론'(비지)과 '후보단일화론'(후단) 그리고 '독자후보론'(독후)이라는 3개의 정치적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독자(민중)후보론은 CA그룹(노동자해방투쟁동맹, 노해동)과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의해 제기되어 '민중추대대통령백기완선거운동본부'(백선본)를 조직하여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했으나 대선 직전 민중후보의 사퇴로 구심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노해동('선봉그룹')은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리되어 소수파는 1989년 11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하고 다수파는 인민노련 등과 1988년 2월 '민중의 당'을 창당했다.³⁹

합법적 진보정당을 표방한 민중의 당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 수립' '민중적 민족자립경제 수립' 등을 제시했으나 1988년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50여 일 만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15개 지역구에서 평균 4.3%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민중의 당은 한겨레민주당(1988년 3월 창당)과 1988년 9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연합'(진보련)을 조직하고 '진보적대중정당건설을 위한 준

38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의의에 대해서는 유경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역사연구》11호, 2002.2 참조.

39 조희연, 앞의 책, 135~136쪽 참조.

비모임' (88.11.10)을 통해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 (민연추, 90.4.13)를 조직하고 1990년 6월 민중당창당준비위를 거쳐 민중당 (90.11.10)을 결성했다.

한편 인민노련, 삼민동맹, 노동계급 그룹의 '3파연합'은 1991년 7월 한국 사회주의노동당창당준비위(한사노동 창준위)를 결성하여 민중당과 통합을 모색했다. 하지만 민중당이 보수야당과 민주대연합을 통해 선거에 대응하려 하자 1992년 1월 한국노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민중당을 압박하지만 결국 민중당과 통합을 이루었다.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51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참패했고 전국적으로 319,041표를 얻어 유효득표를 1.5%를 획득하여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⁴⁰ 이후 진보진영은 1992년 대선에 백기완을 민중후보로 추대하여 합법적 진보정당의 재건을 시도하나 1%에 불과한 23만여 표의 득표로 그쳤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선거에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한다. 1997년 10월 전국연합, 정치연대 등도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결의하여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책기구인 국민승리21을 결성한다.

국민승리21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여 선거에 참여하지만 30만 6천여표의 득표에 그쳤다. 진보정치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위해 급조된 국민승리21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했다. 대선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보정치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국민승리21은 1999년 1월 '진보정당 창당 제안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침내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⁴¹

40 성공회대사회문화연구소, 「1980~90년대 한국사회운동단체 맵·해설」, 2001.

한편 1993년 5월 결성된 민중정치연합(민정련)은 계급적 변혁지향적 노동자중심의 당건설을 제기했다.⁴² 이러한 흐름은 청년진보당(1997년 6월)과 사회당(2001년 8월)의 흐름과 결합하면서 1999년 8월 '노동자의 힘'의 발족을 보기도 했다.

글을 맺으며

모든 정치적 행위는 객관적 상황이 부여하는 과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모든 결과를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고 비틀러지면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다양한 동기에 의하여 활성화"⁴³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운동과 통일전선체운동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정세에 따른 합법과 비합법 조직의 운영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기도 했다. 일제하 신간회에서 해방공간의 건국준비위원회와 4·19 시기 민자통 그리고 1970년대 민주회복국민회의, 1980년대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 1990년대 전민련과 전국연합 등은 진보적 당운동과 때로는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때로는 결합하면서 진보정치를 형성했다.

일제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진보적 당운동의 역사 속에서 제기된 정치이념은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이라는 내외적 조건과 정세에 규정된 한국진보정치운동의 산물이었다. 비합법 전위당과 합법적 대중정당 그리고 통일전선체적 형태를 띠면서 형성, 발전되어온 진보정치운동은 이제 의회정치의 지형에 진입했다. 이제 그것은 '조속한 자코뱅주의'가 아니라 민중의 삶에 착목하

41 김세균, 앞의 글, 10쪽 참조.

42 오세철, 「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 정치조직운동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정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1996, 96쪽.

43 벤자민 I 슈위츠,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 형성사, 1983, 20쪽.

면서 진보적 대안을 생산해내야 하는 현실정치에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다. ■

전명혁 lette@kdemo.or.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의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국대학강사노조위원장 역임. 주요 논문으로는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운동연구」, 「조선공산당의 창립과 활동」 등이 있다.